

# 건강한 학교생활 돕는다

### 도교육청, 학교상당실 구축...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총 50곳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상당실(상당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학교상당실을 편안하고 인락한 분위기 조성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해 빠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총 50개교를

선정해 1교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는 20~31일까지 신청계획서 등을 작성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상당실 미구축교를 우선 선정하고, 상당실은 있으나 위클래스 구축지원비를 받지 않은 학교 위클래스 구축 후 5년 이상 지난 학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현장 실사를 포함한 서류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발표된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의 심리를 고려해 안정성, 심미성, 융통성, 연계성을 갖춘 학교상당실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 상당실을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 K-컬처테크융합원은 지난 17일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호원대-성균관대,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맞손'

### 문화예술산업 분야 연구·K-콘텐츠 교육과정 등 공동 진행

호원대학교 K-컬처테크융합원(원장 최부현)은 지난 17일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원장 정성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수선관 61901 컨퍼런스룸)에서 진행. 호원대학교 정의부 부총장 최부현 K-컬처테크융합원장, 조항민 공연미디어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성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장, 송해룡 명예교수(전 문화융합대학원장), 강점복 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개발 △공

연 관련 실습 기자재의 공동 활용 △K-콘텐츠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양 대학교 학생들의 실습, 현장교육 및 취업관련 협조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협력 등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K-컬처테크융합원은 호원대의 전략 육성분야인 문화예술콘텐츠를 중심으로 복지·보건 및 기술융합 관련 연구와 사업들을 통합·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된 기관이다. 특히, 예술대학의 공연미디어학부,

실용음악학부, K-POP학부의 우수한 인재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인력양성 사업도 펼치고 있다. 정의부 부총장은 "600년 전통 성균관대학교의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과 협력을 맺어 기쁘다"며 "지역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강소대학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 우리대학과 문화예술 거점의 만파위와 학술연구능력이 뛰어난 성균관대학교가 앞으로 협력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성은 원장은 "양교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융합산업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노동인권 감수성 한뼘 키우기'

### 도교육청, 청년 저경력자 지방공무원 대상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과학교육원 사이언스홀에서 MZ세대 저경력자 지방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2030세대 노동 및 노동인권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7일 과학교육원 사이언스홀에서 MZ세대 저경력자 지방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2030세대 노동 및 노동인권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연수는 공직사회 내 MZ세대 증가 등 조직구성원이 변화하면서 세대 특성과 수요 맞춤형 노동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더불어, 노동 및 노동인권 이해를 통한 인식개선을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중심 미래 교육의 주춧돌 전북교육청 2023년 10대 핵심과제 안내 △노동자의 권리 △노동인권 감수성 한뼘 키우기 등이다. 특히 노동인권교육 전문 강사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성민 학교교육팀장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퀴즈를 통한 질의응답으로 2030세대 공무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30세대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번 연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

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들은 물론 청소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노동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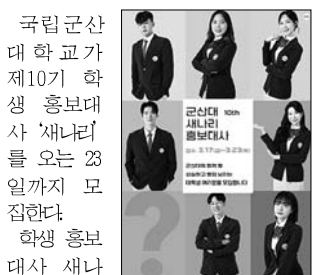
## 올 상반기 미래설계 교육과정 개설·운영

### 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대상 확대... 상·하반기 각 7회씩

전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퇴직 예정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미래설계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년 이후 늘어남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무·재취업·마음치유 등의 다양한 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퇴직 잔여 재직기간 3년 이내인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상·하반기 각 7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상반기 교육신청은 20~29일 전북교육연수포털 누리집(https://baudy.kr)을 통해 진행되며, 교원 7명,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각 50명씩 총 17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주 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험과 채움의 공간에서 미래설계 교육이 교직원의 정년 이후 새물결 시작되는 인생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군산대, 제10기 학생 홍보대사 모집



국립군산대학교가 제10기 학생 홍보대사 '새너디'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학생 홍보대사 새너디는 군산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12명을 선발 예정이다. 홍보대사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이메일(cj1004@kusan.ac.kr)로 지원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4월 3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내년 2월까지 제10기 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330만 원의 장학금(월 30만 원)과 단체복, 우수 활동 홍보대사 포상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대 학생 홍보대사는 다양한 대학 소식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대학 공식 SNS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을 운영하며, 홍보 모델 활동과 대내외 대학행사에 참여하고, 캠퍼스 투어와 외전 활동 등도 한다. 또한 임시 시준에는 수험생들에게 대학을 홍보하는 활동에도 참여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 초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내달 5일까지

### 도교육청, 도내 병설유치원 포함 총 839곳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4월 5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내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839곳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어린이놀이기구 유지관리 상태 및 안전기준 적정성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놀이기구의 고정·작동·손상 및 미모양, 자유 및 하강 공간 확보, 율매임 등의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점검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수리·보수 등에 대해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고액 예산이 투입되거나 전문적 판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 요소를 신속하게 발견·해결해 모든 어린이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지난 17일 정형도수물리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형도수물리치료 전문인력 양성

### 호원대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시험 광주시회 등과 맞손

호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지난 17일 정형도수물리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한물리치료시험회 광주광역시회, 광주805 재활병원, 대한메디칼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와 정형도수물리치료 전문인력 양성에 손을 맞잡았다. 협약식에는 대한물리치료시험회 광주광역시회 장일용 회장, 광주805재활병원 고상형 원장, 대한메디칼랜드정

형도수물리치료학회 안호정 회장과 호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문옥곤 왕중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형도수물리치료 발전 및 활성화 모델 확산 정형도수물리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상호지원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협약 기관들은 4월부터 공동으로 정형도수물리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물리치료사 직무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민방위 특별검열 최우수 선정... 총리 표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2년 민방위 특별검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방위 특별검열 평가는 민방위대 창설일을 기념해 민방위 업무의 중요성 고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검열이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대는 민방위대 편성·자원관리, 교육 운영, 동원 대비태세, 민방위대 장비(필수·화생방·민방위 장비화보), 우수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진배 총장은 "민방위대 임무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떤 위급한 재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과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원광대, 인문강좌 '인문백제7' 22일부터 진행

원광대는 HK+지역인문학센터가 백제시대 다양한 문화유산을 통해 백제 문화의 학술적 가치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인문강좌 '인문백제7'을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백제문화에 관심 있는 전북도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백제7'은 인문지식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능력 증진을 목표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인문강좌는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김중영 책임연구원의 1강 익산토성의 조사와 유물품(3월 22일)을 시작으로 백제왕궁박물관 이은석 학예연구사의 2강 미륵사지의 기와(3월 29일),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이문형 연구교수의 3강 익산 생릉의 열쇠(4월 5일), 전북대 박물관 이종철 학예연구사의 4강 영등동 유적 마한 제사유적(4월 12일), 전북대 박정민 교수의 5강 외유류 유금미성기(4월 19일),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박동범 연구원의 6강 익산의 토기(4월 26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 선정

### 우석대, 2억8000여만원 지원받아 21개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023년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의 풍부한 인적·역량 및 시설 자원을 활용해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석대는 올해 2억8,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김제·남원·정

읍 등 9개 지역 21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천현 총장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의 사회 환원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